



외자계 보험회사, 저조한 시장점유율 기록

왕양비 연구원

■ 12월 5일 PWC이 발표한 「중국의 외자계 보험회사 조사보고」에 따르면, 2011년 외자계 보험회사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저조하며, 향후 3년 내에 동 점유율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- 2011년 10월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보험회사는 2001년 16개사에서 45개사로 증가했으나, 전체 생명보험회사 수의 40%를 차지하는 25개 외자계 회사는 5% 이하, 전체 손해보험회사 수의 36%를 차지하는 20개 외자계 회사는 1%의 시장점유율에 그침.
- PWC는 28개 외자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 향상에다 외자계 보험회사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, 판매 채널 확대 및 우수인력 유지 곤란, 시장 진입장벽 등이 외자계 보험회사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의 주요인으로 분석함.
- 또한, 조사대상인 18개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중 16개사가 운영비용 증가, 이윤 증가 속도 부진 등의 이유로 투자철회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.
- 조사대상 기업들은 향후 중국 보험시장이 고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,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3년 내에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.

■ 그러나 여전히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가 낮아 향후 수입보험료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보험 시장은 외자계 보험사에게 도전이자 기회인 것으로 지적됨.

-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보험침투도가 3.7%로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, 보험밀도도 1인당 165달러로 세계 평균 수준의 1/5에 그침.
- PWC는 2011년 외자계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예상 증가폭이 20%를 초과할 것이며, 2014년에는 외자계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증가폭이 대부분 30%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.
- 또한, 자동차책임보험이 2012년에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에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, 이 경우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.

(중국정권보, 12/06 등)